

Shankara

죽음의 한계가 무너지며 이름없는 것 속으로 들어간다

| 김홍호 |

삶의 그 어떤 경험도 피하지 않고 도리어 적극적으로 맞봄으로써 지혜의 빛이 된 상카라를 김홍호 선생이 이야기합니다(편집자 주).



아디 상카라차리야
(Adi Shankaracharya, 700~732)

다만 내가 사라짐으로 얻은 이러한 큰 생명은 내 생명에 비교해보면
불꽃이 튀는 태양이라고나 할까. 그것은 말로는 표현할 수 없다.
다만 우리들의 생명은 그림자 속의 또 그림자에 불과하다.

인도사람들은 신을 최고로 생각하지 않는다. 신 위에 브라만이 있다고 생각한다. 브라만이란 우주의 절대원리다. 모든 신에 대한 예배는 결국 브라만에게로 돌아간다. 그런 의미에서 인도사람들은 종교에 대해서 꽤 관대하다. 모든 종교는 브라만에 도달케 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도에는 천태만상의 종교가 있다. 한 없이 낮은 종교도 있고 한없이 높은 종교도 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 브라만에 도달하느냐 그것만이 그들에게 있어서 관심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종교적 이기 보다 철학적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브라만은 단순한 우주의 원리가 아니다. 그것이 단순한 원리라면 사색과 명상으로 도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지적인 요소가 아니다. 하나의 인격이다. 인격만도 아니다. 비인격도 포함한다. 그것은 모든 것이다. 유일자다. 전체자다. 말로 할 수 없는 세계다. 아, 오! 하는 감탄사만이 인정이 된다. 그것을 아옴이라고 표시한다. 감탄사만 가지고도 안된다. 그것은 나와 대립한 세계가 아니다. 나를 초월한 세계다. 그저 ‘아니다’라고 표현해볼까? 초월만 할 것도 아니다. 몰입(沒入)된 세계라고 할까. 말로도 행동으로도 표현할 수가 없는 세계, 의식을 넘어선 세계, 초의식의 세계, 그런 세계를 체험하고자 한다. 사람들은 그 세계를 한번 가져보고자 한다. 그 세계

에 도달하는 방법, 그것은 인도사람의 수만큼 많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된다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하면 된다는 사람도 있다. 그런 방법 가운데서 인도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요가다. 억지로 번역하면 심신통일, 혹은 정신통일이라고나 할까.

우파니샤드의 경전 가운데 『카다』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 6장 11절에는 확고하게 감각기관을 통제하는 것을 요가라고 하였다. 그 결과 사람은 흩어진 마음을 통일할 수 있다고 하였다. 요새 요가라면 무슨 미용체조 정도로 생각하기 쉬우나 본래는 엄격한 정신통일이다.

요가라는 말은 말에 자갈을 물리고 일한다는 뜻으로 감각기관을 제어하고 정신을 해방하여 결국은 브라만과 일치되는 경지에 도달하는 것이다. 우리들은 흔히 도(道) 닦는다는 말로 쓴다. 도 닦는 것이 무엇 인지는 모르지만 도 닦은 인간은 닦기 전의 인간보다 한없이 큰 힘을 가지게 된다. 한 사람과도 싸울 수 없던 인간이 백 명을 이겨낼 수 있는 인간이 된다. 결국 소아(小我)가 대아(大我)가 되는 것이다. 현대 사람들은 학문을 통하여 자기를 발전시켜가지만 옛날 사람들은 고행이나 참선을 통해 자기의식을 확대시켜갔다. 처음에는 가지각색의 방법이 행하여졌으나 차차 참선과 호흡의 조절로 정리가 되어 기원전 5세기 경에는 『요가수트라(요가경전)』가 나타나 요가의 수도를 8단계로 정했다.

금계(禁戒), 권계(勸戒), 좌법(坐法), 조식(調息), 제감(制感), 응념(凝念), 선정(禪定), 삼매(三昧)를 8단계라 한다(『요가수트라』 2장 29절).

1. 금계는 죽이지 말 것, 거짓말하지 말 것, 도둑질하지 말 것, 욕심내지 말 것, 가지지 말 것.
2. 권계는 청정(淸淨),知足(知足), 고행(苦行), 독경(讀經), 기도(祈禱).

3. 좌법은 힘을 빼고 대지와 하나가 되어 부동(不動), 안락(安樂)을 완성한다.
4. 조식은 혈액순환을 부드럽게 하고 호흡의 흐름이 없게 한다.
5. 응념은 마음이 가라앉아 아무것도 생각 안하는 단계다.
6. 제감은 감각기관이 멀하고 만다. 그 결과 대상과의 인연이 끊어지고 최고의 순종성(順從性)을 차지하게 된다.
7. 선정은 의식 작용이 다른 의식 작용에게 영향 받지 않고 변함없이 계속 흐르게 된다.
8. 삼매는 의식 작용이 완전히 공(空)이 될 때 진리의 빛이 나타난다.

그들은 이렇게 표현한다.

“한번만이 아니었지만 혼자 고요히 앉아서 자기 속에 나 자신을 상징하는 어떤 생각을 굴리고 있은즉 나의 죽음의 한계가 무너지고 이 름 없는 것 속에 들어가고 말았다. 마치 구름이 하늘에 사라지고 말듯이 그리고 내 발을 만져본즉 낯선 손발이었다. 내 것이 아니다. 그러나 아무 의심도 없었다. 깨끗하고 맑을 뿐이다. 다만 내가 사라짐으로 얻은 이러한 큰 생명은 내 생명에 비교해보면 불꽃이 튀는 태양이라고나 할까. 그것은 말로는 표현할 수 없다. 다만 우리들의 생명은 그림자 속의 또 그림자에 불과하다.”

인도사람은 요가의 특징을 환희(歡喜)로 보았다. 우리들은 법열(法悅)이란 말을 쓰고 있는데 어떤 스승은 이렇게 말한다. “형제여, 제자가 덕의 생활을 살고 감각을 잘 지배할 수 있어 명확한 의식의 충만함을 얻으면 그는 정적(靜寂)한 장소를 구하여 살 것이다. 그는 가부좌로 앉아 몸을 꼳꼳이 하고 마음을 가라앉혀 고정시킬 것이다. 감각을 유

혹하는 모든 인상을 멀리하고 추리(推理)와 반성(反省)을 통해서 제1의 법열로 들어간다.”

그 속에는 환희와 행복이 충만하다. 그리고 추리와 반성이 가라앉으면 제자는 통일된 마음의 일체성과 내부의 평화를 성취하게 된다. 이것이 제2의 법열이다. 환희가 가라앉은 후에 제자들은 다시 깊은 고요함을 느끼게 되는데 이것이 제3의 법열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자들이 고통과 쾌락을 내버렸을 때 그는 깨끗하고 맑은 마음으로 제4의 법열로 들어간다. 그리하여 마침내 최고 의식에 도달하게 된다. 최고 의식에 도달한 사람은 보통사람이 가지지 못한 도력(道力)을 가지고 있다. 그 힘의 표현은 천태만상이다.

여기에 대표적인 요가 성자 샹카라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그는 788년 마라발의 바라문으로 태어났다. 그 후 성장해서 『베다』를 배워 브라만을 알게 되었다. 그는 어려서부터 이상하리 만큼 직관력이 강했다. 어느 날 지나가던 성자가 샹카라를 보고 33세에 죽을 것을 예언하였다. 그 말을 듣고 그는 출가(出家)할 결심을 하였다. 어머니는 그에게 결혼하고 어린애를 낳은 후에 집을 떠나라고 부탁했다. 그런데 그날 그는 강에 갔다가 악어에게 발을 물렸다. 어머니는 하도 황급하여 악어가 자기 아들을 내놓으면 자기도 아들을 내보내겠다고 맹세하였다. 악어가 그의 발을 내놓았을 때에는 그는 이미 수많은 수도자 속에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밥그릇을 차고 남루한 옷을 입고 거리와 들판을 헤매지만 그의 눈은 한없이 날카로웠다. 그는 끌리는 것처럼 어떤 굴로 들어갔다. 거기서 그는 성자 고빈다야티를 만났다. 그리고 그의 뒤를 따랐다. 그는 결국 네 가지를 알게 되었다. 지식은 브라만이다. 영혼은 브라만이다. 너도 그다. 나도 브라만이다. 그는 최고의 의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그가 최고 의식의 황홀에서 지상의

우리들은 나 자신의 주(主)의 가르침에 의하여 나는 이미
개인 영혼이 아니고 진리를 깨달은 자로 불멸의 대아다.
나는 최고의 행복이다. 이런 사람은 누구나 행복 속에 산다.

식으로 돌아왔을 때 선생은 그에게 베나레스의 수도로 가서 신성한 축복을 받으라고 말했다. 젊은 상카라는 평화와 힘의 빛에 넘쳐 인도 최고의 성지를 방문하기로 하였다. 거기서 가지가지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그가 그의 제자를 갠지스강 저편에서 발견했을 때 그는 오라고 손짓을 했다. 제자 파도마라다는 서슴지 않고 강물 위로 걸어오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아무 두려움 없이 그리고 그의 발자취에는 연꽃이 한 송이씩 피어있었다. 그는 베나레스에서 세계적인 걸작 『베다』의 주석을 냈다. 『바가바드기타』의 주석도 썼다. 그 후 그는 베나레스를 떠나 만다나미슈라라는 학자와 만나게 되어 『베다』에 대하여 일대 논쟁을 벌이게 되었다. 결국 미슈라 아내의 심판으로 상카라는 이기게 되었다. 이 부인은 인도에서 아데나로 알려진 사라스와디의 화신이라고 할 만큼 지혜와 미모로 이름난 여성이었다. 부인은 그에게 자기와 논쟁할 것을 제의하였다. 부인의 논봉은 날카로웠다. 상카라에게도 모르는 것이 있었다. 그것은 땅 위의 사랑이요, 육체적인 사랑이다. 상카라는 한 달 동안 유예(猶豫)를 구했다. 신처럼 깨끗한 자기의 육체를 하등 의식으로 더럽힐 수는 없었다. 그는 들로 나갔다. 그는 왕의 상여 행렬을 만났다. 그는 제자들에게 자기 육체를 위탁하고 아마라가왕의 시체로 들어갔다. 시체는 지상 최대의 영혼으로부터 빛과 영기를 얻어 죽음에서부터 소생하게 되었다. 왕후는 기쁨과 사랑으로 남편과 같이 지내게 된다. 상카라는 육체적 사랑도 알게 되었다.

그는 사라스와디의 물음도 대답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여왕은 왕의 지혜와 지식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여왕은 곧 도시 주변의 모든 시체를 불사를 것을 명령하였다. 상카라의 육체를 지키던 파도마타와 다른 제자들은 당황하였다. 그들은 광대로 분장한 후 왕 앞에 나타나 말할 수 없이 고상한 노래로 왕의 귀를 즐겁게 해주었다. 왕은 그들의 정체를 알아차렸다. 그리고 그날 밤 왕은 깊은 잠에서 영원히 깨어나지 못했다. 제자들에게 고임을 받던 상카라는 오랜만에 다시 눈을 뜨게 되었다. 그는 카시밀의 사라스와디 여신의 사당에 도착하였다. 여신의 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모르는 것이 없다. 그러나 여성을 품은 남성은 이 사당에 들어올 수 없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사당으로 들어갔다. 그때 그는 33세였다. 이것이 그의 허락된 기간이다. 그는 의자에 앉은 채 육체를 떠나는 존재가 되었다. 그는 순수 이지가 되어 이 시바라(人格神)의 세계에 도달하여 완전한 공처럼 충만한 행복으로 우주를 꿰뚫는 예지 속으로 들어갔다. 그는 지금도 존재한다. 그의 제자들은 우파니샤드 『바가바드기타』를 읽으며 깨끗한 장소에 구멍을 파고 꽃으로 덮어서 무덤을 만들었다. 그 까닭은 이처럼 깨끗한 요기(요가 성자)의 육체를 불살라 성결(聖潔)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상카라 자신의 말을 하나 들어보자.

어두운 데서 새끼[繩]를 보면 그것이 뱀으로 보인다. 개인 영혼의 불행은 깨지 못한 탓으로 계속된다. 그러나 뱀의 환상이 친구의 가르침으로 소멸될 때 비로소 새끼가 남게 된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나 자신의 주(主)의 가르침에 의하여 나는 이미 개인 영혼이 아니고 진리를 깨달은 자로 불멸의 대이다. 나는 최고의 행복이다. 이런 사람은 누구나 행복 속에 산다. 그들은 이미 행복과 불행, 이득과 손실의 모든 상

대를 벗어나서 영원히 순수한 나의, 혹은 나라의 주아심(主我心)이 없고 언제나 만족하고 모든 사상에 침착하게, 그리고 모든 삶에 착실하게 살 수가 있다. 그것은 모든 환각을 벗어났기 때문이다. 서구 사람들은 아무런 의심 없이 상카라의 이야기를 말하는 인도사람의 어리석음에 놀라지 않을 수 없음과 동시에 그들의 천진(天真)함에 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영국 관현이 요긴을 잡아서 탈혼의 사실을 물었을 때 그는 서슴지 않고 두 발은 내놓고 자기를 땅속에 거꾸로 묻은 후 2주일 동안 있다가 파내달라고 하였다. 2주일 동안 보초를 세웠다가 땅속에서 그를 파보니 웃으며 눈을 뜨더라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는 인도 사람에게는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다. 🌀

• 이 글은 '길을 찾는 사람들'에서 발췌하였습니다.

• 이 글은 미래사의 허락없이 무단 전재나 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

저자 | 현재 김흥호 | 다석 유명모 선생께서 내리신 호는 현재. 1919년 2월 26일 평양에서 부친 김성향과 모친 황성룡 사이의 여섯 형제 중 다섯째로 출생. 1944년 일본 와세다대 법학부 졸업. 1956~1984년 이화여대 기독교학과 교수 및 교목실장. 미국 버틀러대 대학원 종교사학석사. 1986년 감리교신학대 종교철학과 교수. 1996년 이화여대 명예 철학박사. <현재 김흥호 선생은 매주 일요일 이화여대 교회에서 성경과 동양의 고전을 강의하고 계십니다.

추천도서 마음에 닿은 책 Good Book

길을 찾는 사람들

김흥호 저 | 도서출판 솔 | 9,000원

종교철학과 교수를 지낸 저자의 산문집. 70. 11월부터 82. 10월까지 월간 <사색>에 실렸던 글과 친필 일기를 모아 엮었다. 종교적 실존, 무극이태극, 성즉리, 꿈 등 37편의 글과 70년부터 82년까지의 짧은 일기글을 수록했다.

